



한국고분자학회
40대 회장 김 교 현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76년 창립되어 올해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분자학회는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회원 4,800여 명, 매년 2,000여 편의 학술 발표가 이뤄지는 명실공히 국내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본 학회가 국내외적 위상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대학교, 연구소 및 산업체 회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적인 참여 및 활동 덕분입니다. 더불어 본 학회 회원들께서 이루신 많은 연구 성과들은 고분자 관련 학문 및 기술발전, 나아가 국가 위상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OVID-19로 촉발된 New normal의 시대는 전 세계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기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SG와 탄소중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맞이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AI와 Big data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화학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화 발전하는 연구 동향에 맞추어 학계와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가치와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많은 활동들을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여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원합니다. 학회에서는 다양한 지부 및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이 유익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화학산업계를 대표하는 고분자학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대외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학계 및 산업계 여러 계층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신진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여 산학연 중견 및 신진 연구자가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계 회장으로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여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회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도 학회장으로 김윤희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류두열 전무이사 및 여러 운영진들과 뜻을 모아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 학회를 위해 애쓰신 윤호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계묘년 새해에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김 교 현